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위기를 기회로

2025

전주매일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음 12월 3일)

제3657호

대표전화 (063)288-9700

www.jjmaeil.com

군산 비응항에 뜬 새해 첫 일출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날인 1일 군산시 비응항에 첫 일출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한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좋은 일도 있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등 암울했던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지난 한 해를 기억하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간의 위로와 존중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해야 한다. 또한,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을사년 새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올해 1% 경제성장 전망

개혁·혁신 등 체질 개선 절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암울하다.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다.

세계경제가 러·우전쟁, 중국의 경기침체 등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만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과거 두 차례 실패 때보다 타격이 크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는 국가경제가 방향성 없이 흘러갈 것으로 우려된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정상 속도로 회복하느냐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확실하면 성장률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는데 지금 중국과는 무역마찰을 겪고 있다. '트립플 감소'라는 말은 경기 추세가 암울한 상황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반 사이에 6번의 트립플 감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기록이다. 특수 요인 없이 6번씩이나 발생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암울
차기 대선 전까지 방향성 없이 흘러갈 것 우려
얼마나 빠르게 정상 속도로 회복하느냐가 중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와 있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정책은 모두 포퓰리즘이다. 그냥 나눠 먹기만 해서는 답이 없다. 과거에는 파이를 키우는 일을 했다.

개혁, 혁신,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을 해서 성장을 시도해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은 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어렵다.

준금리를 인하하면 침체 국면의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 문제는 기득권을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다. 노동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의료개혁 등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기가 어렵다.

이 가운데 연금개혁 문제가 시급하다. 1988년 국민연금에 출발할 때 소득대체율은 70%, 보험요율은 3%였다. 나중에 조정을 해나가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제 겨우 2025년 소득대체율 41.5%, 보험료율 13%로 조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세금을 넣으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수익자 부담이다. 자기가 낸 돈을 받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세금 부어서 퍼주면 답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을 안 받으려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유예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언제 거둬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부가 가치세도 어떻게 손볼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판에 금투세 하나 가지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수출 국가여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다. 다만 관세 장벽을 10%, 20%로 올리면 힘들어진다.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다. 현대기아차는 상황이 나운데,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납품 허가를 못 받은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도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줘야 한다. 덜 거둬도 다 나눠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다. 결국 경제제도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민생경제 회복·안전 '집중'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 거주 희생자 등 위한 지원 최선"

제야축제 등 행사 취소·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여객기 참사마저 발생해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담화문을 통해 상처 입은 전주시민을 위로하고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급히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트여줄 희망드림 특별보증 지원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담화문을 통해 "비통한 심정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전주 거주 희생자를 비롯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슬픔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전주 거주 희생자 등을 위한 경제적·정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어 "계속된 어려움으로 민생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큰 슬픔과 혼란에 빠진 시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민선8기 전주시는 시정 최우선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계획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시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우 시장은 오는 4일까지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예정됐던 제야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지역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 시민안전 보험 및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인다.

또한 시는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14개 사업) △중소기업 지원(5개 사업) △전통시장 지원(4개 사업) △취약계층 지원(2개 사업) △관광마케팅 강화(2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1,189억원을 투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시는 2025년 새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시사랑상품권'을 당초 계획보다 5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1월에만 500억원 규모를 발행해 소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희망드림 특별보증도 기존 1,700억원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골목상권 드림축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환율 급등과 불안한 국내 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애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또, 17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적기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고, △위기가구 긴급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전시·회의 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민생위기 극복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긴급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연초부터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신년호 매일 INDEX

4면 하계올림픽 유치 공식 선언
5면 전북형 스마트공장
12면 크루즈산업 개척에 '속도'

SAMSUNG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